

#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 '조준'

### 김상조 "올해는 증권그룹 집중 조사... 심각한 소유·지배구조 문제 있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장사 500여개 중 100여개에 대해 부당 내부지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벌였고 그 중 4개사는 제재 수위를 의결하는 심의 중에 있다.

그는 또 "4~5월에 재계와 다시 만나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듣겠다"고 말했다. 특히 총수 일가가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회피하는 방식이 아닌 내부거래 비중을 줄여 실질적으로 일감을 개방하려는 노력을 직접 당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 해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통상 대기업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증권그룹은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의 기업집단을 지칭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2조원에서 5조원 사이의 그룹들을 조준한다. 5조원 미만 그룹들은 공정거래법 23조2의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이들이 10대 재벌그룹 못지 않게 심각한 소유·지배구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인식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해 금호아시아나·태광·대림·하림 등 4개 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제재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까지 상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상반기 내에 이들에 대해 최종 결

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작년만큼 많은 그룹에 대한 조사를 새로 시작하진 않겠다"고 말해 대기업 집단 조사는 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4~5월께 재계 간담회를 다시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10대 그룹과 만났다. 그는 "이번에는 10대 이하의 그룹들을 중심으로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계와 만나면 그간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각 그룹에 성과를 같이 공유하도록 요청해왔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에 15개 대기업이 지분율을 개선하거나 매각, 합병 방식으로 (사익편취) 규제 기준을 벗어 나려고 했고, 또는 진짜 일감을 외부에 개방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며 "지

분을 개편 차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일감 나누기 쪽으로 각 그룹의 노력을 당부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재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의 4개 분야 중에서 혁신성장과 절차법제 분야 등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는 분야부터 먼저 처리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기엔 너무 작다는 지적에 대해서 "갑질 신고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이 확실히 짧아지고 있다"며 "우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데엔 동의하기 어렵다"고도 말했다. 다만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원리금상환액 조회시스템 상반기 구축

### 금융감독원, 3대 혁신TF 권고안 세부과제 68.4% 이행

금융감독원은 7일 발표한 '금융감독원 3대 혁신TF 권고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7년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TF를 구성, ▲금융감독 검사제도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인사·조직문화 혁신 등 3개 분야에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올해 상반기 이행예정인 주요 과제를 보면 원리금상환액 조회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소비자가 직접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자동차보험의 시세하락손해 보상 확대 방안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중고차 가격 하락 손실과 관련해, 보상대출을 출고 후 5년된차량까지 확대하고 차량별 보상금액도 상향된다.

아울러 금융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을 통해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 금융정보 안내서비스도 상반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상품과 관련해 가입 전, 가입시, 가입후로 세분화된 설명

이 시기에 맞게 안내된다.

금감원은 앞서 TF가 제시한 총 177개 세부과제 중 68.4%(121개)를 지난해말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일부이행 과제 15개를 감안하면 이행률이 76.8%에 달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부문별로는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혁신TF의 44개 과제 중 37개가 이행 완료됐다. 보험회사가 판매상품의 약관과 안내자료 등을 자율시정하는 자율감리제 도입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 잔여 세부과제 7개도 모두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65개 세부과제 중에서는 29개 과제가 지난해 말까지 이행됐다. 미스터리 쇼핑 회사별 결과 공개, 증권사 금리산정 모범규준 시행, 은행권 고객 알리지 서비스 도입, 대부업체 표준상품설명서 도입 등이다. 올해 중 25건이 추가 이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11건은 중장기적으로 진행된다.

인사·조직문화 혁신TF의 68개 과제 중에는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무작위 수직거래내역 점검 등 55개 과제가 완료됐다. 올해 중에는 12개 과제가 완료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 이행 상황은 대외 공개하겠다"며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 은행 부실채권비율 2분기 연속 0.97%... 개선세 지속

은행권 부실채권비율이 2분기 연속 1%를 밑도는 한편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년 전보다 큰폭 상승했다. 은행들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된 모양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97%로 2017년 4분기(1.19%) 대비 0.22%포인트 하락했다.

부실채권비율은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다. 2015년말 1.8%, 2016년말 1.42%, 지난해말 1.19%에 이어 올해도 개선흐름이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3분기 0.96%를 기록한 뒤 2분기 연속 1%를 밑돌았다. 은행 부실채권비율이 1%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3분기(0.82%) 이후 지난해 3분기가 처음이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1.43%로 전년말 대비 0.33%포인트 하락했고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0.23%로 0.01%포인트 떨어졌다. 신용카드채권의 부실채권비율도 전년말 대비 0.08%포인트 하락한 1.20%로

계했다.

기업 가운데서는 대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1년만에 0.74%포인트 하락한 2.10%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은 1.05%로 0.07%포인트 떨어졌고, 개인사업자여신은 0.36%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계여신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이 0.17%로 전년말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 기타 신용대출 부실채권비율도 0.36%로 0.02%포인트 떨어졌다.

지난해 말 국내은행의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18조20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조원 감소했다. 기업여신이 16조3000억원으로 전체 부실채권의 89.9%를 차지했다. 이 밖에 가계여신이 1조7000억원, 신용카드채권이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비율은 18조6000억원으로 전년(17조2000억원) 대비 1조4000억원 늘었다. 반면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21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뉴시스



전북농협은 7일 지역본부에서 정읍원예농협 손사선 조합장과 익산군산축협 김신형 차장을 '이달의 우수 농협인'으로 선정·시상했다.

# 전북농협, 손사선 조합장·김신형 차장 '이달의 우수 농협인' 선정

전북농협은 7일 지역본부에서 농업인 삶의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가 큰 정읍원예농협 손사선 조합장과 익산군산축협 김신형 차장을 '이달의 우수 농협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손 조합장은 2005년 취임해 15년간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자립기반

확충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목표로 정읍원예농협을 경영했다.

그 결과 15년 연속 흑자경영과 자산 규모 1000억원 달성, 종합업적평가 우수 농·축협으로 선정되는 등 정읍원협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14년을 기점으로

종합정사 이전과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을 열고 지역 소규모 생산 농가의 판로 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 유통 활성화를 위해 정읍단종미인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경쟁력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영태 기자

이번에 신설된 우수 직원상에 선정된 익산군산축협의 김신형 차장은 가축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 차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은 수상소감에서 "농촌과 농업이 위기에 처했다"며 "어느 위치에 있던 농업인과 함께할 것이며 앞으로 도 조직발전과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지 축적(35.5%) 등 설치, 사용환경 관리도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점검·평가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 노인요양시설 대형가전, 2대 중 1대는 사용기간 초과

노인요양시설에 비치된 대형가전 제품들이 전기화재에 취약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7일 수도권 소재 노

인요양시설 20개소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를 대상으로 한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를 발표했다.

411대 중 239대(58.2%)는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권장사용기간을 초과한

채 상시 사용됐다.

특히 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들은 일반 가정에서보다 사용량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에어컨에 문어발식 배선을 사용하거나(14.6%), 세탁기에 방직형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57.9%), 냉장고 발열판 내부 먼지 축적(37.5%), 김치냉장고 콘센트 접촉부

등 설치, 사용환경 관리도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점검·평가 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뉴시스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